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교육학(음악교육)석사학위논문

알테 플루트 교본 제2권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지 수

알테 플루트 교본 제2권 연구

An Analytic Study of Alte's Flute Method Volume 2

2019 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지 수

알테 플루트 교본 제2권 연구

지도교수 김 지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지 수

박지수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재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정은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지현 인

2018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점	3
3. 선행연구 고찰	5
II. 이론적 배경	8
1. 플루트 교재	8
2. 조셉 헨리 알테	12
III. 알테 플루트 교본 분석	13
1. 교본의 개관	13
2. 알테 교본의 특징	14
3. 알테 교본의 단원구성	17
4. 알테 교본의 단원내용	18
IV. 결론 및 제언	53
참 고 문 헌	55

악 보 목 차

[악보 1] 제1시리즈 각 조의 음계 아르페지오	18
[악보 2] 제2시리즈 각 조의 음계 아르페지오	19
[악보 3] 시대에 따른 스타카토	20
[악보 4] 메조 스타카토	21
[악보 5] 테누토	22
[악보 6] 메조 스타카토 연습	22
[악보 7] 싱크페이션	23
[악보 8] 긴 앞꾸밈음	26
[악보 9] 짧은 앞꾸밈음	27
[악보 10] 겹앞꾸밈음	27
[악보 11] 트릴	28
[악보 12] 트릴의 끝음	29
[악보 13] 손가락을 단독으로 움직이게 하기위한 연습	30
[악보 14] 손가락을 단독으로 움직이게 하기위한 연습 2	30
[악보 15] 더블 텅킹	31
[악보 16] 주요음에서의 트릴	32
[악보 17] 내려가는 음계의 트릴	32
[악보 18] 현재의 짧은 트릴	33
[악보 19] 반발트릴의 연습	33
[악보 20] 4개의 턴	34
[악보 21] 3개의 턴	34
[악보 22] 턴의 쓰기와 내기	34

[악보 23] 점음표의 턴	35
[악보 24] 여러 가지 형태의 턴 연습곡	35
[악보 25] 하이든 소나타의 악보	36
[악보 26] 페르마타	37
[악보 27] 음표의 줄여쓰기	38
[악보 28] 음표의 줄여쓰기 2	39
[악보 29] 음의 강약	40
[악보 30] 음의 강약 2	41
[악보 31] 음형	42
[악보 32] 연습곡	43
[악보 33] 줄임표의 연습곡	45
[악보 34] 조옮김	46
[악보 35] 조옮김 2	46
[악보 36] 조옮김 3	47
[악보 37] 조옮김 4	47
[악보 38] 비브라토	47
[악보 39] 빠른 비브라토	48
[악보 40] 소나타 9번	50
[악보 41] 2개의 플루트를 위한 소나타	51

표 목 차

<표 1> 플루트 교재의 사용비율	2
<표 2> 플루트 교재 판매량	3
<표 3> 플루트 교재의 종류	11
<표 4> 국내 시판중인 알테 플루트 교본	15
<표 5> 알테 플루트 교본 2권의 구성	17

그림 목 차

<그림 1> 플루트의 특별운지	24
<그림 2> 플루트의 운지표C	29
<그림 3> 음악 용어 해설	52

ABSTRACT

An Analytic Study of Alte Flute Method Volume 2

Park, Ji su

Advisor: Prof. Kim, Ji-Hyun, Ph. 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was the examination of textbooks and flute textbooks to consider the issue of important choices as a textbook for flute education. And we studied the second volume of the existing flute alte textbook that has been used the most in Korea. As a result, the most introduced textbook in Korea, I recalled the need for specific research on the second volume of the Alte Flute Bridge. And the materials were analyzed by compiling them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for a detailed analysis of the textbook.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of the text in the second volume of the text. Selecting textbooks that best satisfy both teachers and basic learners requires constant research on flute materials to be complementary to other textbooks rather than sticking to specific ones. Teachers should also be able to select the appropriate songs based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s and the goals they wish to achieve. To become a quality-enhanced flute education, teachers' careful efforts and continuous study posture are required from the selec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the quality of teachers who can apply appropriate learning methods to each learner. Therefore, in order to involve qualitative improvement along with quantitative growth of flute education, specific studies on flute textbooks

should be continued based on the professionalism of flute instructors. Flute teaching books have long been widely used as flute teaching, but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 above mentioned shortcomings with other textbooks in parallel. Therefore, I believe that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learning of flute education will be possible if interested studies on flute teaching become more active in the futur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람들은 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바쁜 일을 하는 와중에도 많은 악기의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며, 즐기고 싶어 한다. 그중에도 맑고 투명한 음색을 지닌 플루트는 기악 악기 중 휴대하기 편하고 다가가기 쉬운 악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다. 이에 따라 학교 방과 후 활동, 문화센터, 아카데미 등이 많이 생겨나면서 플루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배유리, 2006: 1).

플루트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기 중의 하나이며, 넓은 의미에서 구멍이 뚫린 관을 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입김만으로 관속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소리를 내는 악기를 뜻한다. 또한 특별한 발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악기 중에서 인간의 호흡 소리를 가장 닮은 악기이다. 인간의 호흡이 가미되어 아름다운 음색을 내는 플루트는 악기의 분류상 그 재료에 관계없이 목관악기 군에 속한다. 오늘날 반짝이는 악기의 겉모습에 반하여 악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짧은 시간에 기초를 다지기가 쉬워서 플루트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최경, 2014: 1). 관심도가 높은 만큼 플루트를 배우고 싶어 하는 입문자들에게 필요한 실기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플루트 교육을 위해선 개인들의 특성과 능력에 맞게 교본을 선택하여 음악적인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플루트를 배우는 과정 속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또한 교본의 역할이며, 그만큼 교본에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음악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교재의 선택이고, 교재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재의 내용이다. 플루트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도 교사의 자질, 교수내용 및 방법 등 여러 요인이 적용되지만 각 학습자에게 어떤 교재를 선택하여 지도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최경, 2014: 6). 교본은 어떤 교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어떠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지 플루트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플루트 교본 중 알테 교본 제2권을 연구 내용으로 선정한 이유는 교본 내에 설명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되어있어 가르치기가 편리하며 배우기가 쉽고, 학생 혼자서도 연습과 복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알테 플루트 교본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고, 많은 출판사들이 출판해왔으며, 방과 후나 문화센터에서의 교재 사용률로도 가장 높다.

플루트 알테 기초교본은 초급이라는 수식어처럼 1권밖에 연구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알테 제2권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플루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테 교재의 분석 내용을 제공하여 플루트 교재를 활용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플루트 학습에 있어 교재의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들을 논하고자 한다.

<표 1> 플루트 교재의 사용비율 (김희정, 2003: 34)

교재	사용수	비율
알테 플루트 교본	7	39%
플루트 교실 1	5	28%
기초 플루트 교본	3	17%
알프레드 플루트 교본	2	11%
알프레드 플루트 교본	1	5%
자체교재	1	5%
합계	18	100%

현대 문화센터 11지점과 신세계 문화센터 7지점의 플루트 교재 사용 비율은 다음 <표 1>과 같다. 18곳의 문화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인 초보자를 위한 플루트 교재 조사결과, 알테 플루트 교본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플루트 도서 판매량 순위 5위까지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플루트 교재 판매량

순위	교재명	출판사
1	알테 플루트 교본 1	삼호뮤직
2	플루트 교본 1	음악세계
3	플루트 교본 2	음악세계
4	최신 알테 플루트 교본	세광음악
5	기초 플루트 교본	세광음악

위 <표 2>와 같이 알테 교재 이후에 출간된 플루트 교재들이 다양하고 많지만, 교재의 사용률과 판매량을 살펴보면 알테 플루트 교재는 꾸준히 많은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교재 구매율로도 가장 높다.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점

본 연구는 플루트를 입문하는 대상으로 플루트 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알테 플루트 교재연구,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져있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의 플루트 및 플루트 알테 교재에 관한 연구 현황과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문헌 연구를 통해 플루트 교재에 관해 고찰한다. 또한 음악교육용 교재 분석을 위한 분석의 관점을 정리한다.

셋째, 교본의 전권의 개관, 단원 구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테 플루트 교재를 분석 연구한다. 단원의 구성 내용에는 목차 및 전곡 구성체계와 각각의 단원 내용을 분석 연구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어느 정도 연구 내용들이 알려져 있지만, 좀 더 새롭게 보강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알아내서 후학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들을 산출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연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집되어 출판 되고 있는 알테 플루트 교본은 여러 종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개편되어 사용되는 알테 플루트 교본의 내용연구와 사용빈도를 하나씩 조사 할 수없는 한계가 있어 교수법의 내용 전개상 원본은 같으므로 삼호판 알테 플루트 교본 제2권으로 정하여 연구하였다. 알테 1권은 기존에 선행연구가 되어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알아낼 수 있는 알테 2권을 가지고 집중 분석을 한다. 즉 알테 플루트 교본 제2권의 구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고, 16~31과까지 차례대로 분석해 나아가면서 각 악곡들에 나타나는 학습 목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습목표외의 다른 주제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 분석하여 알테 플루트 제2권에 수록한 연습곡을 어떻게 구성해 나아갔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는 알테 및 플루트 교본에 관한 연구 현황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물들을 고찰하였다. 정리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도영(2016)의 본 논문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플루트 교본 중 '알테 플루트 교본'을 선택하여 성인 초보자를 위하여 분석 및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학습자가 플루트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것이며 그에 따른 플루트의 음악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방안을 작성 하였다.

배유리(2006)는 플루트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 교재에 대해 비교 연구하고 교재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알맞은 교재 구별방법과 선택에 대해 제안하였고, 플루트 학습에 있어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플루트 지도를 위한 교사들의 교재 연구와 플루트 교육에 끊임없는 검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종현(1997)은 플루트 교재에 관한 유일한 논문이다. 교재는 크게 음악교육이론의 활용 이라는 영역과 플루트 주법 및 개요에 대한 이해라는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음악 교육방법의 가장 효율성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는 기악 지도에 대한 플루트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였고, 기악교육의 극대화를 위하여 음악교육이론의 방법론을 활용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악기론 적인 관점과 플루트 주법에 대한 교수법을 연구 하고 개발하는 것이 플루트의 개발 이라고 제안하였다.

심유진(2008)은 현재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언급하였고, 교육 과정의 목표를 실현하기위해 방과 후 학교활동에서의 운영현황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룹지도를 위한 실기 지도 방안과 플루트 교육을 실시한 10개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해 조사하였고, 8권의 플루트 교재를 비교 분석하여 방과 후 수업에서 창의적인 음악활동을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제안하였다.

오지은(2010)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많은 학습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방안을 연구 하였고 플루트 기초교재를 분석하여 플루트 그룹지도에 맞는 곡과 학습의 순서를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연구 하였다. 6권의 교재를 분석하여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였고, 12주 그룹지도안을 작성하였다. 교사들은 플루트를 지도함에 있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악기로 직접 붙여주며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에게 효과적이라 제안하였다.

이세라(1999)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플루트 교육활동과 플루트 특기적성, 클럽활동의 적합한 플루트 교재를 제시하였고, 현대 교육의 지향 점은 학생, 학부모 중심의 교육이며,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이 열린 교육으로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 하였다. 본인이 현재 지도하고 있는 초등학교 플루트 특기적성 활동의 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과거의 교육활동에 비해 현재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였고, 효과적인 플루트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거듭나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정진숙(2003)은 방과 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특기 적성 교육 활동 중 플루트를 위한 학습지도시 합주와 이중주를 실제 특기·적성 교육 활동 수업시간에 쓰여 질 수 있는 지도안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에서 오케스트라에서의 플루트의 위치와 역할, 기본적인 복식호흡의 사용법,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주자세, 플루트의 역사를 다루었고, 이중주와 합주지도에 맞는 학습지도안을 작성 하였다. 플루트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연구하여 그룹지도에 맞는 중급단계의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최경(2014)은 현재 보급되고 사용되고 있는 기초 교재인 알테 플루트 교본, 플루트 교실, 어린이 플루트 교실 세권의 교재를 비교분석 했고, 각 교재의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알맞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세 교재의 단점을 보완하여 플루트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현재 플루트 교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모든 교재는 플루트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같다고 제언하였다. 연구대상을 아동으로 하였을 때 적합한 교재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전민(2000)은 기악지도에서의 그룹지도의 필요성과 장점을 말하였고, 플루트 그룹지도를 위한 기초교재를 선택하려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학습상황에 맞는 교재를 적절히 선택하는 방법과, 교재 선택 시 주의사항 및 그룹지도를 위한 수업방안을 제시 하였다. 현재 기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높아지는 경향에 비해 교재의 연구는 미비하고, 플루트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재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기초교재들이 체계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처럼 플루트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는 플루트 교재에 관한 내용, 플루트 교수방법이나 학습방안 등의 지도방안, 알테 플루트 교본 제1권에 대한 연구와 제2권의 단원구성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알테 플루트 교본에 대한 분석을 하여 플루트 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알테 플루트의 교본을 접하려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알테 플루트 교본 제2권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플루트 교재

교재란 교육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화 소재이며, 이를 학습에 합하도록 새롭게 구성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교재는 학생과 교사의 중요한 교육활동의 기본 구성요소이며 특히 교재는 교사와 학생을 연결 짓는 매개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재는 일반적으로 교수·학습의 순서와 내용, 교수법을 지정해 주며 교수·학습의 자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보조 학습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교수와 학습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는 교수·학습의 목적이 분명하게 두드러져야 하고, 학습 사항이 단계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 교재는 학습자의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연령이나 학습 시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우형식, 2003: 138).

사전적인 의미로 교재는 “성악 또는 기악 학습을 위해 마련된 교육 도서 및 악곡집의 일체로 음악학습의 기초이론 습득과 연주기능 연마를 주목적으로 해서 단계적, 체계적으로 편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세광음악출판사, 1982: 121). 교재는 학습자의 지식이나 기능을 만들어가는 소재가 되는 것이지 교재가 학습자의 지식이나 기능의 성격,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재란 교육 목적이 교육과정이나 단원을 구성하는 소재로서 그것이 교육의 방법에 따라 학습이 성립됨으로써 학생의 학력이 된다. 학생의 학력은 교재에 대하여 학습시킨 결과 습득된 것으로서 거기에 학습태도나 학습능력 또는 교사의 교육 태도나 지도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교육학사전, 1992: 156).

교육에서 활용되는 교재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자료를 뜻한다. 음악 교재연구는 학습자의 역량과 실력에 따라 학습의 난이도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의욕과 흥미, 재미를 유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하며, 이론·기능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학습 활동과 여러 가지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는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바람직한 음악 교재의 조건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다양한 사고 및

탐구 능력을 최대한 성장시켜 주고, 시대흐름과 과학발전에 맞추어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길러줄 수 있는 교재여야 한다(김신영, 2017: 11).

플루트 교재란, 플루트 연습이나 혹은 플루트 연주를 목적으로 하여 쓰여진 모든 책자를 일컫는다. 플루트 교재는 플루트 학습에 필요한 일체의 음악자료를 말하지만 플루트 교본은 이들 자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습과정을 꾸며놓은 서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석지혜, 2000 :2). 즉,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플루트상의 훈련을 위한 음악 서적이거나 연주, 감상을 위한 여러 악곡을 수록한 음악의 모든 편집물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플루트 교본이란 플루트를 배우기 위한 입문서로 호흡 방법부터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학습 상 필요하다고 결정짓는 이론적인 해설을 잘 알맞게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플루트 주법을 익히게 하는 형식으로 편찬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플루트 교본이라는 용어가 곧 플루트 교재와 일치되어 통용되기도 하므로 대체로는 두 가지 용어를 편이대로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 예가 빈번하다. 교재는 그 속에 목적, 기능력, 지도내용과 같은 음악교육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 존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 학생에게 어떤 교재를 택하여 지도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박선민, 2003: 8).

오늘날 플루트 교재의 기본적인 특성으로는 여러 명의 저자 혹은 한사람에 의해 쓰여진 여러 권의 책으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하나의 교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플루트 교재는 플루트를 입문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제공해 준다(배유리, 2006: 8). 기존의 교재들의 내용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운지법, 소리 내는 방법, 호흡하는 방법 등 학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론적인 해설을 알맞게 잘 배치하여 결과적으로는 플루트를 익히게 하는 형식으로 된 것이 많다. 교재 자체는 현대의 교본에서 주법 중심의 교재에서 보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재로 질적인 변화를 보이며 기술 습득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플루트 교본1』의 저자인 한스 피터 슈미쯔(Hans-Peter Schmitz)는 플루트 교재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플루트 교본1, 1994: 1).

음악 교재에 있어 활자화된 언어는 음악과 음악 연주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단지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한 표현을 할 수 있을 뿐, 음악 속의 충성함과 다양성을 표현 할 수는 없다. 또한, 아주 명쾌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엮은 교본이라도 그것을 적용해서 시도하려는 생생한 귀가 없거나, 연주자의 일반적인 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감이 발전하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이 연주자의 내면에 스스로 연주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함양되지 못했다면 교본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진정한 의미의 플루트 교재는 음악적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독자적인 예술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일이어야 한다(정성운, 2012: 27).

이러한 플루트 교재는 플루트를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제공해 준다(강선혜, 2004 :2). 기존의 교재들은 내용적으로는 기본적인 운지법부터 시작하여 학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론적인 해설을 안배하여 결과적으로는 플루트의 기초적인 주법을 익히게 하는 형식으로 된 것이 많다(이상화, 1999). 따라서 교재 자체는 기술 습득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나 현대의 교본에서는 주법 중심의 교재에서 보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재로 질적인 변화를 보였다(배유리, 2006: 9).

교재를 유용하게 사용하면 학습자가 보다 집중하여 수업에 즐겁게 임할 수 있고, 흥미와 동기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플루트 교재는 플루트를 입문하는 대상들이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하며 여러 가지 기법과 곡들이 수록되어져 있고 음악기초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악보에 익숙하지 않거나, 독학을 하는 경우에는 쉽고 빠르게 배우고 연주할 수 있게 하는 교본을 말한다. 플루트 교재의 내용에는 플루트를 배우기 이전에 플루트란 무엇인지 악기의 선택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플루트의 손질과 보관 악기의 취급방법과 악기를 잡는 자세 호흡 처음 익혀야 할 운지표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하고 많은 곡들에 코드를 삽입해놓기도 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정확하고 아름답게 연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사는 플루트 교재를 매개체로 삼아 학생에게 학습할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며, 한편학생은 플루트 교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연주 기법들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교사 없이 혼자서 연습할 경우 교재는 학습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교재라 하더라도 학생이 그것의 의미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교사가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교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플루트 교재는 음악적 재능을 지닌 학생이 전문적 능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생과 지도교사가 독자적인 방식과 방법으로 만들어어나가는 것이다(최경, 2014: 5).

플루트 교재의 종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는 플루트 기초교재는 대략 30여종에 달한다. 대부분의 교재들은 출판사의 편집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외국의 교재를 번역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하는 교재들은 많지 않다. 그 중 대형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루트 교재를 김희정의 논문을 참고하여 2000년대 이후로 출간된 플루트 교재들을 재구성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플루트 교재의 종류 (김희정, 2003: 31)

출판사/저자명	교재명	출판년도
일신서적출판사 / 김성미	스마트 플루트 교본 2	2014
지호연 / 음악세계	플루트 교본.1	2011
태림출판사 / 김성환	플뢰테	2007
삼호출판사 / 정효숙	어린이 플루트 교실	2009
상지원 / 여수정	플루트 교본 1	2014
세광음악출판사 / 최광순	최광순 프루트 교본 3	2012
삼호ETM / 정효숙	플루트 교실 2	2011
일신서적 / 김성미	스마트 플루트 교본	2014
상지원 / LOUIS HITTLER	멜베이 플루트 교본	2007
다라/ 다라 플루트 연구회	플루트 교본 1(타파넬 고베르)	2009
일신서적 / 김영	기초 플루트 교본	2007
상지원 / 편집부	완성중심 플루트 연주 교본1	2008
오선 / 편집부	플루트 스터디	2000

3. 조셉 헨리 알테

프랑스 루앙 지방 출신의 조셉 헨리 알테(Joseph Henri Altès, 1826-1895)는 19세기 후반의 플루트 연주가이다. 파리음악원에서 플루트를 배우고 파리 오페라의 플루트 연주가로 이름을 날렸으며, 1868년부터 그가 사망한 1895년 7월 24일 까지 모교인 파리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군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0세 경 처음 플루트 연주를 시작하였는데, 14세부터는 파리 음악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며, 장 루이 뿔루(Jean Louis Tulou, 1786-1865)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알테는 1848년부터 1872년까지 파리 오페라의 첫 플루트 연주자로서 활약했고, 1868년부터 1893년까지 파리음악원의 플루트 교수인 루이 도루(Lou Dorus)의 후임 교수로 머물렀다.

알테는 파리 음악원 (Paris Conservatory)에서 입선 경쟁을 위한 6개의 솔로와 오페라 주제에 대한 필사본 또는 판타지를 포함하여 약 40 개의 작곡을 남겼다. 그는 파리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1888년에 플루트 교본(Methode pour Flute, Systeme Boehm, Contenant LaTheorie de la Musique,)을 저술하였다.

20세기 초반의 플루트 교본으로 파리Leduc에서 출판되었는데 약 반 세기 후인 1956년에 카레제 개정판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 되면서 이 때 국내에도 보급이 되었다. 이것이 현재 국내에서도 사용되는 알테 플루트 교본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플루트 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오랜 교육의 힘은 음악적인 이해를 깊게 하고 연주기술을 쉽게 터득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다.

III. 알테 플루트 교본

1. 교본의 개관

알테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에서는 초심자들이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충분한 롱톤 연습 후에 매 단원마다 한 가지 테마를 주제로 변주한 연습곡을 배우게 되어있어 아티클레이션 및 리듬 등 어려운 기술을 정확히 익힐 수 있어 플루트를 전공하고자 하는 초급자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훌륭한 책이다(오지은, 2010). 최근의 프랑스판 알테 플루트 교본은 개편이 이루어져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의 교본은 주로 근대적 악전을 제외하고 테크닉과 같이 필요한 부분들을 새로이 추가·편집하여 원본과 같이 3권의 구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교본 속 연습곡 대부분은 알테의 자작곡이며, 초보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모든 면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며 학생과 교사 또는 학생과 학생이 함께 연주 할 수 있는 2중주곡을 각 단원마다 제시하고 있다(알테 플루트 교본, 1988: 5).

제1권은 플루트의 역사, 구조, 취급 및 모든 음역의 일반적인 운지법에 의한 기초 연습이 주이고 뒷부분에 추가로 가리볼디의 미농 연습곡이 실렸다.

제2권은 좀 더 나아가 일반 기술 편으로, 음계, 모든 장·단조, 비브라토, 더블 텅킹, 꾸밈음 등 연주에 있어 필요 되는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하여 연습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3권은 고급 편으로 여러 가지 주법에 의해서는 텅킹(Tonguing), 하모닉스(harmonics), 비브라토(vibrato),를 다루고, 운지법 에서는 교체운지, 특수 운지 등을 다루고 있다.

알테 플루트 교본은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플루트 교육에 첫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습 교본으로 각광받고 사랑받는 걸작 중의 걸작이다. 현재 표준 알테 플루트 교본의 형태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편집하여 발행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다.

2. 알테 교본의 특징

알테 교본의 특징으로는 플루트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잘 다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교재가 세 권으로 되어있어서 두 권이나 한 권으로 되어있는 여타 플루트 교본들과 비교했을 때 학습량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이나 진도 구성 또한 매우 세세하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모든 설명이나 내용이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통하여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며, 비교적 친숙한 선율이 수록되어있는 것은 적지만 보다 쉬운 선율을 통하여 고난이도의 기술을 익히게 하는 방식은 연주자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기술 연마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연주자가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많아 연주의 즐거움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초급부터 고급까지의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배우기 위한 연계가 잘 이루어져있고, 다소 난해한 부분은 자세한 설명과 그에 따른 여러 연습곡을 수록하여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연주자가 충분한 학습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알테 교본을 선택한 이유는 가르치기가 쉽고 편리하며, 학습자들이 배우기가 쉽다. 교본 내의 각 과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으며, 배운 내용을 교사 없이 학생 혼자서도 연습과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각 과마다 기초적인 연습이 들어 있다. 각 과에 맞는 연습곡 밑에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으며, 플루트 교사들이 플루트 입문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선택하는 교본이다.

<표 4> 국내 시관중인 알테 플루트 교본

출판사	교재명	저자/편집	출판년도
삼호뮤직	알테 플루트 교본. 1	J. H. 알테	1988.04.01
삼호뮤직	알테 플루트 교본. 2	J. H. 알테	1997.09.10
삼호뮤직	알테 플루트 교본. 3	J. H. 알테	2009.12.15
일신서적	알테 플루트 교본. 1 .2. 3	일신서적 편집부	1995.11.01
음악세계	알테 플루트 교본. 1 .2	음악세계 편집부 지음	2009.08.24
현대음악출판사	알테 플루트 교본. 1	현대음악 출판사	1993.10.01
현대음악출판사	알테 플루트 교본. 2	현대음악 출판사	1993.11.01
현대음악출판사	알테 플루트 교본. 3	현대음악 출판사	1994.01.01
세광음악출판사	최신 알테 플루트 교본. 1	세광음악 편집부	1988.01.01
세광음악출판사	최신 알테 플루트 교본. 2	세광음악 편집부	1988.01.01

위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알테 플루트 교재의 종류를 출판사별로 다양하게 편집해 제시해놓았다.

교본의 내용은 깔끔하게 글과 그림으로 정리 되어 있으며 제2권은 플루트를 연주하기 위해 기초적인 음계연습, 꾸밈음, 새로운 운지법에 대하여 알아야한다. 이러한 것은 교본의 첫 시작이나 기본 학습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제3권에서는 2권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텅킹, 하모닉스, 특수운지 등을 연습해 연주에서 고급기술을 습득 하여야 한다.

3. 알테 교본의 단원 구성

알테 플루트 교본 제2권의 단원 구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알테 플루트 교본 2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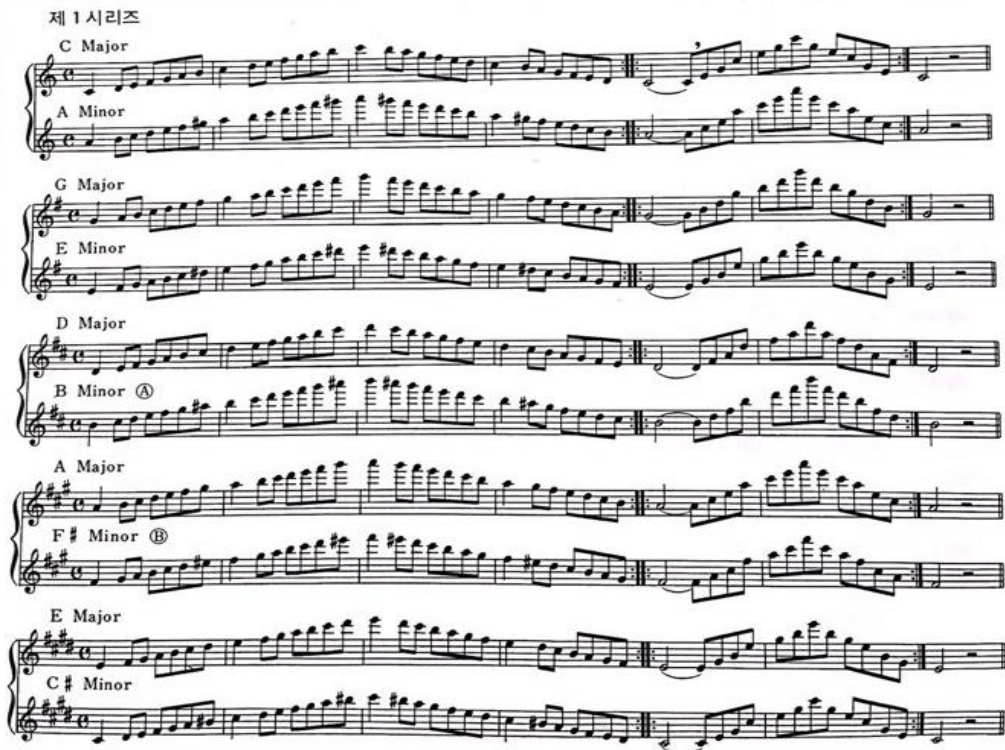
차 례	학 습 내 용
제16과	여러 가지 아티클레이션
제17과	싱커페이션
제18과	운지표B와 그 연습
제19과	긴 앞꾸밈음 연습
제20과	짧은 앞꾸밈음 연습
제21과	트릴
	운지표 C
	트릴 연습
	더블 텅킹의 연습
제22과	짧은 트릴
제23과	반발 트릴의 연습
제24과	턴과 그 연습
제25과	여러 가지 형태의 연습
제26과	악보의 줄여쓰기
	곡의 스타일, 표현
	음형에 대하여
제27과	음색
제28과	줄임표의 연습
제29과	조옮김
	비브라토
제30과	고전 플루트 2중주의 연습 (헨델, 텔레만)
제31과	연습용 2중주곡

위의 <표 5>는 알테 플루트 교본 제2권에서 학습하려는 목표들과 학습목표가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제시되는가에 대한 목차이다. 여러 가지 곡의 구성과 테크닉적인 요소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았고, 제시된 <표 5>를 통해 제2권에서 다룰 수 있는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연주의 연습 내용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알테 플루트 교본 제2권에서 학습하려는 목표들과 학습목표외의 다른 음악적인 요소들이 악곡에서 전개되는 방식과 또한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4. 알테 교본의 단원의 내용

알테 플루트 교본 제2권 교재의 단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 연습을 위한 각 조의 음계와 아르페지오를 장조와 단조로 나누어 교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이름한소리조의 것 외에는 모두 중복되어 있으며, 2개의 시리즈로 나뉘어 제2권의 각과를 연습하는 동안 ‘플루트를 위한 하농’과 같은 음계악보를 제시하였다. 교재의 도입부에 첨부 되어있는 [악보 1], [악보 2]와 같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플루트의 소리를 내기 전 음계 연습을 통해 매일연습을 할 수 있다.

제 1 시리즈



[악보 1] 각 조의 음계와 아르페지오

제 2 시리즈
C Major

A Minor

F Major ©

D Minor ©

B♭ Major ©

G Minor ② ©

E♭ Major ©

C Minor

A♭ Major ©

F Minor ©

D♭ Major ©

B♭ Minor ② ©

G♭ Major ②

E♭ Minor

[악보 2] 각 조의 음계와 아르페지오

제1권의 15과에 대한 연습을 완벽하게 숙지가 된 다음에는 [악보 1]과 [악보 2]의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하여 연습하면 15분정도의 연습이 플루트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음계 연습은 무리하게 빨리하면 도리어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부정확한 버릇이 붙으

므로, 템포와 음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되도록 메트로놈에 맞추어서, $J=120$ 정도로 연습하고,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 $J=200$ 정도로 연습한다.

손가락을 불필요하게 높이 드는 버릇은 대부분의 학습자가 가지고 있으며, 자신은 깨닫지 못하므로, 이 음계 연습에서 가끔 거울을 보고 고쳐 가면 좋다고 조언하였다.

매일 연습을 위한 각 조의 음계와 아르페지오를 보면 Major와 Minor를 나누어 올바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고, 반음계 악보를 넣어 플루트의 모든 음계를 학습자가 연습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 제2권의 제16과

제2권의 16과에서는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을 학습한다. 음의 형태와 텅킹에 대해 학습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아티큘레이션의 종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티큘레이션의 종류에는 대시 스타카토, 오늘날의 스타카티시모, 메조 스타카토, 테누토가 있다. [악보 3]을 제시하여 시대에 따른 스타카토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습곡들을 통하여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을 충분히 다루어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6과에서는 12/8 박자의 연습으로 어려운 패시지의 연습 때 외에는 발로 박을 치는 습관은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알테 시대의 대시 스타카토



오늘날의 스타카티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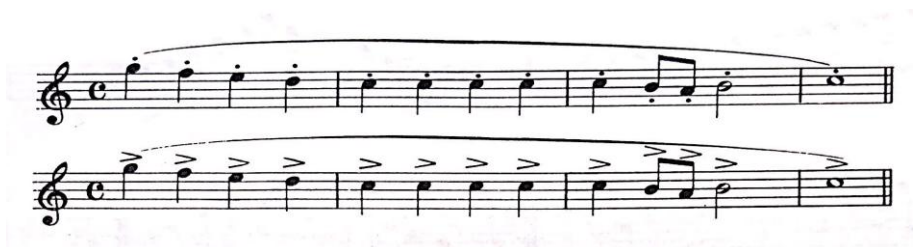


[악보 3] 시대에 따른 스타카토

[악보 3]과 같이 시대에 따른 스타카토들은 작곡가가 연주자에게 악곡을 전하기 위한 힌트여서 매우 관념적인 것이며, 그 시대와 나라에 따라 기보법과 주법이 변해왔다. 보통의 점이 붙은 스타카토라도, 바하 시대에는 스타카토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균등하고 정확히 연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해지며, 그 밖의 보통 음표라도 빠를 때는 스타카토가 되므로, 스타카토를 적지 않는 작곡가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결국,

작곡된 시대, 또는 그 곡의 빠르기나 곡상으로부터 연주자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택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하였고, 그 곡의 빠르기나 연주의 흐름에 맞게 연주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권에서는 플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초적인 연습이 주를 이뤘다면 2권은 1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곡을 연주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들을 학습하는 단계이다. 16과에서는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 이라는 제목 아래 대시 스타카토, 메조 스타카토, 테누토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과 다양한 연습곡으로 구성되어있다. 교본에서 말하고 있는 대시 스타카토는 음표의 아래나 위에 대시를 붙인 것으로서 [악보 3]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타카티시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스타카토보다 짧고, 간결하게 연주하지만, 알테의 설명에 의하면 보통의 스타카토보다 악센트를 길게 하나씩 붙여 붙 수 있도록 적혀 있다. 그러므로 긴 악센트가 붙은 스타카토의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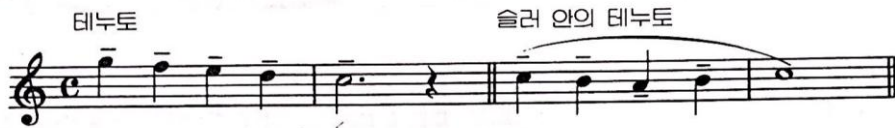
대시 스타카토는 음표 위 또는 아래에 대시를 붙인 것으로서, 현재는 스타카티시모라고 불리며, 스타카토보다 짧게 연주하지만 알테의 해설에 의하면 보통의 스타카토보다 길게 하나씩 악센트를 붙여서 붙도록 한다. 또한 작곡된 나라와 그 시대에 따라서 기보법과 연주법도 달라진다.



[악보 4] 메조 스타카토

[악보 4]의 메조 스타카토는 슬러 안에 점이 붙은 음표를 말하며, 스타카토보다 부드럽게 연주를 해야 한다. 플루트의 텅깁은 Tu-를 사용하는데, 메조스타카토를 연주할 때에는 Tu-발음 대신 Du-를 발음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기분을 나타낼 수 있다.

[악보 5]의 테누토는 음의 길이를 시간만큼 충분히 길게 내는 음을 말하며, 슬러 안에 테누토가 있을 때 예는 각 음에 스타카토와 같이 Du- 텅깅을 하면서 음을 끊지 않고 붙어야 한다. 또한 슬러 안에 음의 높이가 같고, 붙임줄이 없을 때는 메조 스타카토와 마찬가지로 텅깅을 한 슬러 안에 또 슬러가 있는 경우도 메조 스타카토와 같이 텅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 끝에 점이 붙어 있을 때는 그 음을 가볍게 텅깅 하면서 짧게 끊고, 슬러 바깥에 점이 붙어 있을 때는 텅깅을 하지 않고 짧게 끊는 것을 나타낸다.



[악보 5] 테누토

[악보 6]은 연주하는 곡이 어느 조인가를 곧 알 수 있도록 각 연습곡에는 조를 적어 넣었다. 대문자는 장조, 소문자는 단조를 나타낸다고 설명을 넣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위 [악보 6]은 메조 테누토가 아니므로, 다음에 연결되기까지 음을 길게 지속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박자에 Lento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메조 스타카토는 너무 짧지 않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주해야 한다.

연습곡으로는 주제와 변주가 있는 연습곡으로 바레이션이 나누어져 있어 16과에서 배웠던 스타카토, 메조스타카토를 연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악보 6] 메조 스타카토의 연습

2) 제2권의 제17과

제2권의 17과에서는 약박으로부터 강박까지 당겨진 음, 그 음의 약박이었던 머리가 강박으로 대치된 것을 싱커페이션이라고 [악보 7]을 통해 설명하였다. 싱커페이션을 연주 할 때의 주의 점과, 지금까지에 비해 연습곡이 약간 어려우므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악보 7] 싱커페이션

[악보 7]의 싱커페이션은 앞의 음은 그 다음의 싱커페이션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약간 짧게 끊고, 싱커페이션 음은 악센트를 붙이며, 그 다음의 싱커페이션을 뚜렷이 하기 위해 끝을 여리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싱커페이션을 연주 할 때는 짧은 음은 악센트를 붙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음을 강하게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16분음표가 나오는 연습곡에서는 16분음표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연습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3) 제2권의 제18과

제2권의 18과에서는 손가락 바꾸기를 위한 연습곡과 교체운지를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중음과 저음의 F#은 오른손 약손가락의 보통 운지만 사용해 왔지만, E음으로 매우 빠르게 이어지면서도 슬러가 걸쳐 있을 때는 음의 연결이 나빠지므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의 교체운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림 1] 운지표B를 제시하여 플루트의 특별운지를 설명하였다.

운지표 B

(보통의 플루트이든 프렌치 모델이든 모두 공통인 것)

오른손에만 사용한다

프렌치 모델(링 키) 플루트의 특별 운지

- 표는 운지를 쉽게 하고 음의 연결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교체 운지.
- △표는 피치를 올리기 위한 교체 운지.
- ×표는 매우 빠른 패시지에만 사용해야 피치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
- *악기에 따라서는 오른손 가운데손가락만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다.
- B표의 운지는 여기에 적힌 음의 움직임에만 사용되며, 다른 음형일 때는 A표의 운지를 사용한다(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의 F#만은 음계적인 상승 또는 하강에도 사용되지만).
- 그러나 피치를 올리는 운지는 이 음형뿐만 아니라, 피아니시모로 피치가 내려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일이 있다.
- ④링 키의 끝만으로 키를 움직이고, 가운데구멍을 막지 않는다.
- ⑥키의 구멍을 거의 막는다.
- ⑦키의 구멍을 3/4 정도 막는다.
- ⑧키의 구멍을 절반 가량 막는다.
- ⑨알테는 "키의 구멍을 3/4만 막는다"라고 썼지만, 이 운지는 전부 막아도 올라가는 듯한 정도이므로, 전부 막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림 1> 플루트의 특별운지

알테에서는 <그림 1>의 운지표B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자세 히 설명을 하였다.

<그림 1>은 ○표와 △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 이 ○표는 운지를 쉽게 하면서 음의 연결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교체 운지이며, △표는 피치를 올리기 위한 교체운지이다. X표는 굉장히 빠른 패시지에만 사용해야 음정의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은 악기에 따라서는 오른손 가운데손가락 만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다. 운지표B의 운지는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의 F#만은 음계적인 상승 또는 하강에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적힌 음의 움직임에만 사용되고, 다른 음형일 때는 A표의 운지를 사용한다. 또한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의 F#만은 음계적인 상승 또는 하강에도 사용되지만 피치를 올리는 운지는 이 음형 뿐 만 아니라, 피아니시모로 피치가 내려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운지표B에서는 ㉠부터 ㉥까지의 운지키를 설명하였다. ㉠부분은 링 키의 끝만으로 키를 움직이고, 가운데구멍을 막지 않는다. ㉡키는 구멍을 전부 막고, ㉢키는 구멍을 3/4 정도 막는다. 또한, ㉣키의 구멍을 약50%가량 막고, ㉤키의 구멍은 전부 막아도 음정이 올라가므로, 전부 막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알테에서는 ㉥키의 구멍을 1/3만 막는다 라고 제안하였다.

교체 운지는 하기는 쉽지만 음정이 약간 내려가고, 음색도 어둡기 때문에 음이 깨끗하게 나도록 주의해야하며, 슬러로 재빨리 계속될 때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교체 운지에는 어려운 패시지를 쉽게 하기 위한 것과, 피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있다. 전자는 아무래도 음정이나 음색을 희생하게 되므로, 작게 들리는 음정을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빠른 경우에만 사용하는데, 교체 운지에 의해 음정이 나빠지는 것은 입술이 그 운지에 익숙해져 있으면 음정의 흔들림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맞추게 된다. 후자의 피치 조정만을 위한 운지는 프렌치 모델의 악기 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 한 두 곳만 그 운지를 사용하면 도리어 이상하게 들리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대에 이르러 음정은 평균율을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며, 너무 작은 반응은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므로, 빠른 패시지에서 운지를 쉽게 하기 위한 교체 운지 외에는, 링 키의 플루트라도 너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외의 연주 할 때의 교체운지는 <그림 1>을 통해 학습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익히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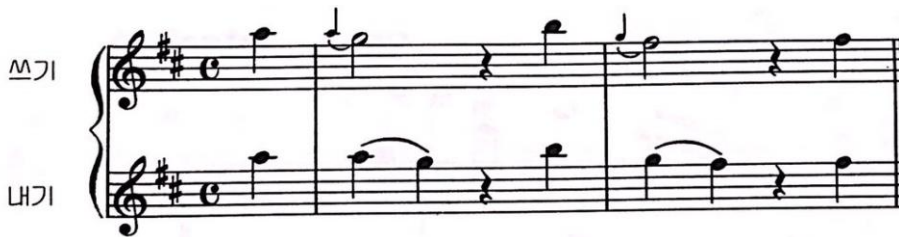
4) 제2권의 제19과~20과

제2권의 19과에서는 앞꾸밈음, 뒤꾸밈음, 트릴, 셰이크, 턴 등을 통틀어 꾸밈음이라고 설명하였다. 바하 이전의 고전음악에서는 악보에 없더라도 연주자가 자유롭게 꾸밈음을 붙여서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꾸밈음을 붙이는 방법으로 연주자의 우열이 판가름될 정도였으나, 그 이후는 점차 작곡가가 기입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고, 연습곡들을 통하여 다양한 아티클레이션을 충분히 다루어볼 수 있게 하였다.

먼저 긴 앞꾸밈음은 연습곡에 이어 20과에서는 짧은 앞꾸밈음 연습을 통하여 연주곡의 박속에 꾸밈음을 넣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1권을 공부할 때와 달리 2권은 반드시 매트노름을 준비하여 지정된 빠르기가 가능해진 다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습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만을 연습하고, 완전히 가능해지면 전체를 통틀어 연습한다.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다시 연습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걸리는 곳마다 항상 반복 하는 방법으로 연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총 정리 할 때는 실수가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전부 끝낸 다음, 잘못된 부분만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다.

긴 앞꾸밈음은 으뜸음 앞에 작은 음표로 나타내며, 통상적으로 주요음의 1/2길이의 작은 음표를 적는 것이 표준이지만, 그보다 짧은 음표가 사용되기도 한다. 주요음의 1음 위나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음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주요음을 절반으로 연주 할 수 있을 때는 그 절반을 가지며, [악보 8]과 같이 연주한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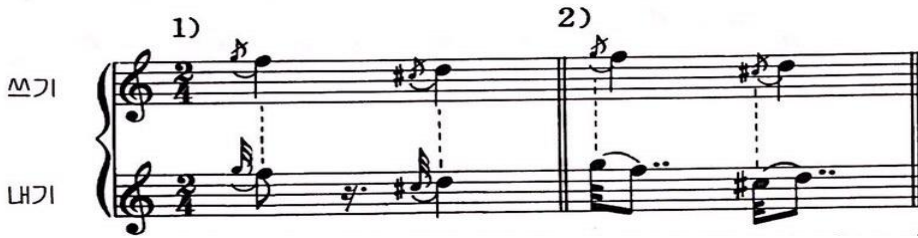


[악보 8] 긴앞꾸밈음

꾸밈음의 기보법을 쓰는 이유는 바하 이전의 실내악에는 고음 선율과 저음 선율만 악보에 적혀 있어서 첼발로 주자가 합주할 때 즉흥적으로 오른손의 화음을 채워 가는 형식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때 비화성음이 선율 속에 들어 있으면 혼동하기 쉬우므로, 비화성음은 작게 적도록 되어 그것이 습관으로 남은 것이고, 훗날 출판 할 때 이 긴앞꾸밈음과 다음에 설명하는 짧은 앞꾸밈음을 혼동해서 인쇄했기 때문에, 짧은 앞꾸밈음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이라도 원곡은 긴앞꾸밈음 인 것이 있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짧은 앞꾸밈음은 아주 짧은 앞꾸밈음이며, 빗금이 있는 작은 음표로 나타내지고, 8분음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드물게 16분음표도 사용한다. 알테는 “빠르기 때

문에 주요음에서 시간을 빼내지 않는다” 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악보 9]과 같이 박 앞에 나오는 것과 박 머리에 넣는 것의 2가지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악보 9] 짧은 앞꾸밈음

[악보 9]에서의 1)은 보통의 경우로서, 짧은 앞꾸밈음은 약간 박 앞에서 내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주 짧기 때문에 거의 박과 동시에 연주되며, 악센트는 주요음에 있다고 설명하였고, 2)는 바하 이전에 많이 보이며, 박과 동시에 앞꾸밈음이 시작되면서 악센트는 앞꾸밈음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겹앞꾸밈음에서 2개 이상의 꾸밈음은 박보다 앞의 음에서 길이를 빼는 것과 박의 머리에서 시작되는 주요음에서 빼는 것의 2종류가 있다고 [악보 10]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어느 것이 좋은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악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악보 10] 겹앞꾸밈음

[악보 10]의 (1)은 겹앞꾸밈음을 박보다 앞에서 내고, (2)는 박의 머리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지만, 보통은 구별해서 적혀 있지 않다. 결국 겹앞꾸밈음과 뒤꾸밈음의 기보법은 혼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주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또한 겹앞꾸밈음을 연주 할 때는 손가락이 미끄러지지 않고, 음들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도록 연주해야 한다.

5) 제2권의 제21과

제2권의 제21과에서는 대표적인 꾸밈음으로서, 주요음과 그 하나 위의 음을 교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트릴에 대해 설명하였고, 더블 텅킹의 연습방법과 텅킹의 좋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연습곡을 통하여 더블 텅킹과 트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느린 곡일 때 트릴이 천천히 시작하여 점점 빨라지면서 끝나는 것은 있지만 빠른 곡에서도 트릴의 빠르기는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한다.

트릴은 항상 주요 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통인데, 바하 이전에는 앞의 음이 한 음위가 아닌 경우 항상 위의 음부터 시작되었다고 제언하였다.

현재 [악보 11]의 음부터 시작하는 트릴에는 한 음 위의 짧은 앞꾸밈음을 적어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트릴표 위에 #또는 b, ♯등이 붙었을 때는, 트릴의 높은 쪽 음이 #또는 b, ♯등으로 변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악보 11] 트릴

트릴을 끝내는 방법에는 2가지 예로 악보를 제시하여 이해시켰고, 악보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제언하였다. 트릴의 끝 음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는 [악보 12]와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위의 예처럼 종결 직전의 레 음 트릴은 종결의 도 음을 반음 올리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끝음이 적혀 있는 예



트릴의 수는 몇 개이든 넣을 수 있는 만큼 넣는다.

[악보 12] 트릴의 끝음

보통의 운지로 트릴을 연주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림 2>의 운지표C를 통해 특별한 운지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주를 할 때 어떤 키를 써서 연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림 2>의 *표의 것은 특수한 트릴 키가 붙은 악기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며, ㉠트릴의 첫 음은 정규의 운지를 사용한다. ㉡ (1)의 운지이든 A#레버이든 좋다.

운지표 C

♯ 이 키를 트릴한다.
♯ 트릴이랄리 키를 잡는다. [] 안은 오우른.

! 가운뎃손가락으로 트릴해도 좋다.

*표의 것은 특수한 트릴 키가 붙은 악기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트릴의 첫음은 정규의 운지를 사용한다. ㉡ (1)의 운지이든 A# 레버이든 좋다.

<그림 2> 운지표C

[악보 13]은 손가락을 단독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연습으로 Allegro($\text{♩}=152$)의 빠르기로 시작하여 익숙해진 다음 점점 빠르게 해서 ($\text{♩}=180$)정도로 한다. 연습하는 동안 호흡을 유지 할 때에도 손가락을 멈추지 말고, 매일 끈기 있게 연습하면, 점차 오랫동안 계속하게 될 것이다. 연습할 때는 --- 부분에서 호흡해도 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는 것이 좋다.



[악보 13] 손가락을 단독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연습

손가락에 따라 움직임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므로, 여러 주간에 걸쳐 연습해야 하는 것도 나온다. 어느 손가락이나 모두 $\text{♩}=160$ 정도로 가능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곡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불가능한 부분만 되풀이해서 연습하면 반드시 가능해지므로 [악보 14]는 트릴의 운지(C표)로 연습한다.



[악보 14] 손가락을 단독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연습 2

[악보 15]과 같은 경우는 Tu와 Du의 텅깅을 결합시켜서 더블 텅깅을 하는 것이 좋고, 짧은 음표는 Tu로 발음하고, 긴 음표는 Du로 발음한다고 설명하였다.

Du의 경우 메조 스타카토일 때보다 강한 악센트를 붙이는 것이 좋다고 알테는 언급하였다.



[악보 15] 더블 텅깅

더블 텅깅을 연습할 때는 Tu와 Du의 혀의 움직임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긴 음과 짧은 음의 텅깅과 숨을 내쉬는 방법을 기분 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와 같이 처음에는 항상 Tu로 시작한다. 타파넬·고베르의 교본에서는 이런 한 곳에서 Te Te Re Te Re Te를 써서 긴 음과 짧은 음의 텅깅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더블 텅깅은 빠른 곡들에 많이 사용되며, Allegro, Allegretto의 박자인 연습곡들을 수록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6/8박자의 연습곡을 통하여 다양한 리듬의 더블 텅깅을 연습 하도록 하였고, 박자에서는 천천히 6박으로 세면서 익숙해지면 빠르게 연습하라고 설명하였다.

6) 제2권의 제22과

제2권의 제22과에서는 짧은 트릴의 여러 가지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악보를 제시하여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짧은 트릴은 시넬러¹⁾나 프랄트릴러²⁾, 모르텐트³⁾, 아그레망⁴⁾ 등 시대나 나라에 따라

1) 트릴의 일종. 흔히 자리바꿈 모르텐트로도 이해된다. C. P. E. 바흐는 1753년 시넬러를 독립된 꾸밈음으로서 도입했으나 그 독자적인 표를 정하지 않았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0712&cid=60517&categoryId=60517>, 2018년 10월 14일 검색.)

2) 음계적으로 하행할 때 아래쪽 음에 나타나며, 머릿부분의 보조음은 앞의 음과 타이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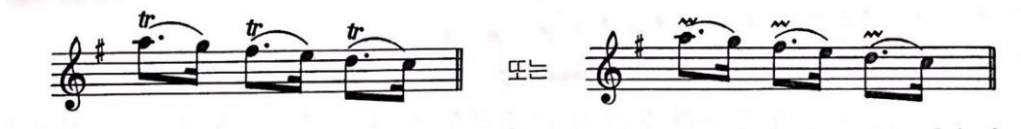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2606&cid=60517&categoryId=60517>, 2018년 10월 14일 검색.)

3) 꾸밈음의 일종. 떤음 이라고도 한다. 주요음과 바로 아래의 인접음(도움음)을 신속하게 왕복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비슷하거나 혼동되어, 그 주법에는 정설이 없고, 같은 표라도 작곡 연대나 나라, 연주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연주된다고 제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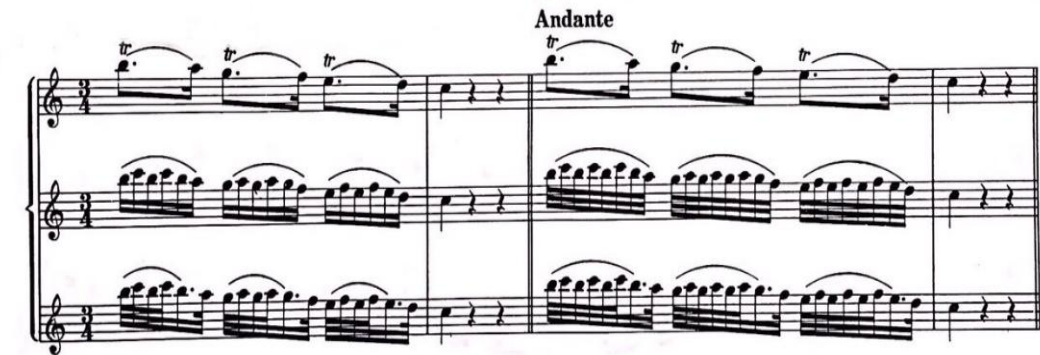
음계적으로 내려가는 짧은 트릴과 그 밖에 현재에 연주되는 방법을 악보로 제시하여 설명하였고, 바하 시대의 음악에서는 물결 모양의 수로 트릴의 수를 나타낸다고 제언하였다.

알테는 이 [악보 16]에서 이 점음표에 붙은 tr또는 ~표는 2개나 3개 많으면 4개의 짧은 트릴로 주요음에서 시작하며, 종결음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악보 16] 주요음에서의 트릴

[악보 17]에서는 음계적으로 내려가는 음들의 트릴에 대해 설명하였다. 2가지의 방법의 연주로 뒤쪽이 많이 쓰인다고 언급하였다.



[악보 17] 내려가는 음계의 트릴

것이다(그 회수는 주로 음표의 길이로 결정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0144&cid=60517&categoryId=60517>, 2018년 10월 14일 검색.)

4) 꾸밈음, 꾸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0806&cid=50334&categoryId=50334>, 2018년 10월 14일 검색.)

그 밖에 현재 짧은 트릴은 [악보 18]과 같이 연주하기도 한다.



[악보 18] 현재의 짧은 트릴

7) 제2권의 제23과

제2권의 제23과에서는 반발트릴의 특징에 살려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곡을 수록하였고, 꾸밈음을 넣고 연주 할 때의 주의사항과 반발트릴의 연주방법을 설명하였다.

[악보 19]은 연습곡의 일부이다. 악보에 숫자를 삽입하여 꾸밈음을 넣어 연주 할 때의 연주방법을 설명하였다. 악보에서의 1)은 작은 음표로 적었거나 tr표이든 주법은 같으므로, 이 작은 음표는 박의 머리에서 시작한다. 2)는 한 음 위의 짧은 앞꾸밈음을 연주 할 때의 주의 점을 언급하였다.



[악보 19] 반발트릴의 연습

8) 제2권의 제24과

제2권의 제24과에서는 꾸밈음의 종류 중 하나인 턴을 설명하였고, 음의 종결 장식을 가진 짧은 트릴로 생각되는 것으로 4개의 음으로 형성되는 일이 많지만, 3개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악보를 통해 쓰는 방법과 내는 방법, 박자에 맞게 턴을 연주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래의 악보는 턴의 개수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위의 음과 아래 음의 간격은 보통 단3도나 감3도이다. 턴은 [악보 20]의 4개의 음으로 형성되는 일이 많지만, 3개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악보 21]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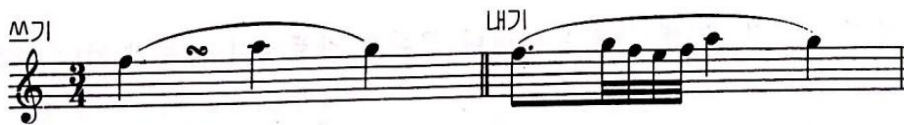


[악보 20] 4개의 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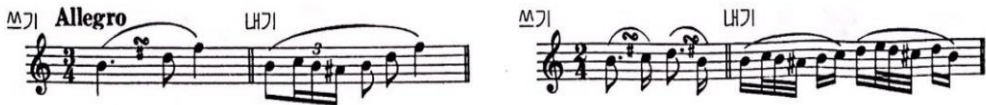
[악보 21] 3개의 턴

턴은 작은 음표로 적는 일도 있지만, [악보 22]의 쓰기와 같이 ∞표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이 표가 음표중간에 적혀 있을 때는 앞의 음표에서 시간을 취하며, 긴 음표에 붙든 짧은 음표에 붙든 빠르기는 곡상 등에 의해 조금은 바뀌지만 거의 바뀌지 않고, 이 표의 위 또는 아래에 임시표가 있을 때는 턴의 위 또는 아래의 음을 반음 올리거나 내림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악보 22] 턴의 쓰기와 내기

아래와 같은 [악보 23]의 점음표의 턴은 3개의 음으로 되며, 점의 길이 앞에 턴이 들어간다고 설명하였다.



[악보 23] 점음표의 턴

9) 제2권의 제25과

여러 가지 형태의 턴 연습으로 높은 옥타브의 어려운 턴은 트릴 운지에 나와 있는 운지를 연결한 것이 많지만, 첫 음은 가능한 한 정규의 운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하였고, 4분음표 위에 붙은 턴은 박 머리부터 시작하는 5음턴이며, 점음표 위에 붙은 턴은 빠를 경우에는 별도로 적었듯이 박의 앞으로 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내지 말고 다섯잇단음표처럼 연주해도 좋다고 설명하였다.

연습곡들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하이든 소나타의 곡에서도 볼 수 있는 턴의 형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악보 24] 여러 가지 형태의 턴 연습곡의 일부

여러 가지 형태의 턴 연습곡 중 일부이다. 위의 [악보 24]에 삽입되어 있는 숫자로 턴의 연주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턴의 쓰는 방법과 내는 방법을 동시에 알도록 악보 밑에 제시해두었다.

[악보 25]은 하이든 소나타의 악보 일부이다. 이 작품에서는 특별한 표시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트릴의 종결음을 붙여 연습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알테에서는 꾸밈음의 연주하는 방법과, 각 과에서 배웠던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공부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다.

하이든 소나타에서 이 페이지의 작품에는 적혀 있지 않더라도 트릴의 종결음을 붙인다.

Adagio

[악보 25] 하이든 소나타의 악보 일부 중

10) 제2권의 제26과

제2권의 제26과에서는 페르마타와 음표의 줄여쓰기, 곡의 스타일과 표현방법, 음의 강약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음색과 음의 연결, 음형에 대해 덧붙여 설명하였다. 박을 세지 않고 음을 뺀 페르마타는 제1권의 내용에 나왔지만, 제2권에서는 그 밖에 쉼표에 붙은 페르마타의 연주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악보 26] 페르마타

[악보 26]의 쉼표에 붙은 페르마타는 음 위에 붙은 것과 같이 박을 세지 않고 알맞게 쉬거나 자유로이 연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1), 카덴짜(연주자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한 장식적 프레이즈)를 연주시키기 위한 것 2)과, 겹세로줄 위에 붙여서 Fine와 마찬가지로 곡의 끝을 나타내는 것 3)이 있다고 악보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알테에서는 음표를 줄여 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악보 27]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알테에서는 음표를 줄여 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악보 27]를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악보 27] 음표의 줄여쓰기

같은 음표나 음의 반복을 다시 쓰는 대신 다음처럼 줄여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악보 27]에서 쉽게 판단 할 수 있다. 고음역은 덧줄이 많아지면 읽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옥타브 아래로 적고 8va.....를 붙인다. 즉, 8va.....에서 lo-co까지의 사이를 옥타브 높게 연주하는 것이다. 1박, 또는 1마디의 시간 안에 보통 이상의 여러 음을 넣는 경우에는, 1박 또는 1마디의 시간 안에 연주하는 음의 수를 그 음표의 위나 아래에 숫자로 나타낸다.

[악보 28]에 적혀 있는 곡의 스타일과 표현, 연주 스타일은 각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통인 것이어야 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방법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작곡자가 느낀 것에 공감하여, 자신과 청중이 이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연주에서 이해한 것이나 공감한 것은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연주를 많이 듣는 일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곡의 스타일과 표현에 대해 설명하였다.

곡의 스타일 · 표현

[악보 28] 음표의 줄여쓰기 2

음에 강약에 있어서는 마우드피스를 대는 방법, 고음과 저음에서 입술의 움직임에 대해 공부했기 때문에 제2권에서는 곡상의 차이에 따른 적절한 강약 붙이기를 연습해야 하고, 그 연습에는 먼저 긴 음의 크레센도와 디미누엔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였다.



[악보 29] 음의 강약

[악보 29]의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주의 점을 언급하였다.

첫째, 입술 모양은 같아도 세게 불면 피치가 올라가고, 여리게 불면 내려간다.

둘째, 숨의 세기가 같더라도 입술을 오므리면 올라가고, 펴면 내려간다.

셋째,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어 숨의 방향을 위로 하면 올라가고, 아래턱을 당기면 내려간다.

이상의 3가지를 이용하면서 연습하지 않으면, 포르테는 피치가 올라가고, 피아노가 됨에 따라 피치가 내려가 버린다. 그러나 입술이나 턱의 움직임이 너무 크게 하면 반대의 결과가 되므로, 잘 들으면서 정확한 음정을 잡도록 주의해서 연습한다. 플루트는 피아노와 포르테 사이의 차를 표현하기 어려운 악기이며, 특히 높은 옥타브의 피아노, 및 피아니시모는 훈련된 입술로도 아주 어렵다. 피아니시모는 웬만큼 작아서는 포르테와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악보 30]의 연습은 매일 끈기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한꺼번에 많이 해도 효과가 없다. 이 앞의 연습을 하면서 매일 1번과 2번을 교대로 하거나, 또는 다른 연습곡(가리볼디의 20개의 작은 에튀드 Op.132등)과 함께 연습하면 좋다고 제안하였다.



[악보 30] 음의 강약 2

음형은 몇 개의 음이 연속하여 어떤 가락이나 악곡의 요소가 되는 음의 모양을 뜻하며, 음의 강약과 음의 형태가 각 곡에서 그 때마다 적절하여 좋은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알테 에서는 음형에 대해 언급하였다.

슬러가 붙어 있지 않은 점음표의 경우는 반드시 [악보 31]의 1) 및 2)처럼 되어야 하며(곡이 빠를수록 첫음은 짧아진다), 3)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짧은 음표는 스타카토의 점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스타카토의 느낌이 되며, 곡이 빨라짐에 따라 완전히 스타카토가 된다. 특별히 악센트표가 붙어 있지 않은 한 슬러 중에서 각 음의 음량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의와 나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곡 중에 적혀 있는 나타냄표는 반드시 음악사전을 찾아 충실히 지키도록 하고, 적혀 있지 않은 때는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아 그 곡에 맞는 형태를 택한다. 악기의 성능이나 기호에 따라 처음에는 꼭 숨을 몰아 쉬어 포르테로 하는 사람이나, 고음을 무척대고 크게 불고, 저음은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각 곡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피아노나 포르테를 생각하며 연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악보 31] 음형

제1권부터 종종 주의해 온 것이지만, 플루트의 높은 옥타브는 공기주의 진동 형태가 각 음마다 바뀌므로, 음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고, 음이 바뀔 때 일단 중단되고 다시 다음의 음이 울리게 되며, 슬러가 걸쳐진 음을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입술과 손가락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높은 옥타브의 C장조 음계만 들으면 그 사람의 기술을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 특히, 손가락을 높이 드는 버릇과 올리는 방법이 고르지 않으면, 음의 연결을 나쁘게 하므로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11) 제2권의 제27과

27과에서는 음색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연습곡들을 많이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혼자 연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각 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잊지 않고, 연습곡들마다 넣어 알려주었고, 플루트의 기본적인 연주 테크닉을 마스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보 32]는 제 2권의 27과에 제시된 연습곡 악보의 일부이다. 이 연습곡에서는 앞에서 배웠었던 페르마타와 더블 텅킹, 음의 강약을 넣어 학습자들이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보 32] 연습곡 일부

알테에서는 플루트의 음색에 대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놓았다.

플루트의 음색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개성이 있으며, 처음부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음색이 나누어지듯이 성악의 발성 연습처럼 연습으로 조금씩 좋게 할 수가 있다.

저음. 중음 옥타브 일 때의 음색이 너무 예리하고 밝거나, 고음 옥타브에서 너무 가늘 때는 입술구멍이 너무 얇고 부는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이므로, 입술로부터 목이나 팔로부터도 불필요한 힘을 빼고, 입 안을 넓혀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벌려서 마치 “하품”할 때의 느낌처럼 부드럽게 불도록 하면 좋다. 이 경우 입술 구멍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다.

이와 반대로 저음. 중음 옥타브의 음색이 어둡고 둔하며, 고음 옥타브에서 딱딱하고 시끄러울 경우는 마우드피스의 위아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므로, 입안을 좁히는 느낌으로, 입술을 약간 옆으로 당겨서, 얇은 구멍으로 세게 불도록 하면 좋다. 특히 고음 옥타브에서는 숨을 많이 불어서 무리하게 울리지 말아야 한다. 입술을 옆으로 당긴 채 중앙부만 뽀족하게 하는 듯한 느낌으로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어 적은 양의 숨으로 울리도록 하면 음색이 가늘고 아름다워진다.

제1권의 처음에도 말했듯이, 입술의 바깥 공기에 접하고 있는 부분으로 불면, 깨끗한 형태의 입술 구멍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음색이 나빠진다. 아주 작더라도, 입술 위아래 모두 조게 내밀어서 안쪽의 부드럽고 평평한 부분으로 불도록 하면 좋다.

마우드피스에 입술을 대는 깊이의 정도도 음색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데, 너무 깊으면 음색이 예리하고 평평해지며, 너무 얇으면 둔하고 야물지 못한 음이 된다. 그러나, 예리한 음색과 부드러운 음색을 곡에 따라서도 변하고, 각 개인의 취미도 있으므로, 어느 음색이 가장 좋은 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색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음에서 음으로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각 음을 깨끗하게 내는 일이다. 바이올린에 비해 플루트는 초보 단계에서는 쉽지만,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부드럽고

균형 잡힌 음의 움직임은 연주 전체를 아름답게 하고 음색 그 자체도 좋게 느끼게 한다.

악기 재료나 두께에 의한 음색의 차이는 입술의 개성에 의한 것만큼 크지는 않아도, 대개 얇고 가벼운 악기일수록 음이 밝고, 가늘며, 무거운 악기는 그와 반대로 중후하고 볼륨이 있다. 근대에 이르러 밝고 금속적인 음색을 애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플루트의 목관에서 은관으로 바뀌고, 그 근관도 얇고 가볍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마우드피스의 평형과 산형에 의한 음색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평형은 밝고, 산형은 무거운 듯한 느낌이다.

12) 제2권의 제28과

제2권의 제28과에서는 줄임표의 연습에 관한 연습곡들을 많이 수록하여 학습자들이 혼자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Vivace ♩ =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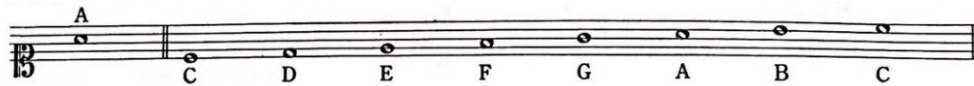
[악보 33] 줄임표의 연습곡

줄임표의 연습에 관한 주제인 것처럼 [악보 33]을 보면 *이것은 트레몰로가 아니라 줄임표이므로 수를 정확하게 넣는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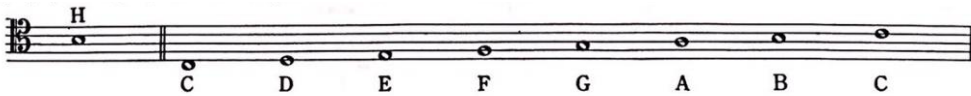
13) 제2권의 제29과

29과에서는 어렵지 않은 곡은 조옮김해서 악보를 다시 그리지 않고서도, 눈으로 보면서 그대로 3도 가량까지는 조옮김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 두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비브라토의 연습을 할 때 주의사항과 그에 맞는 방법에 대하여 악보를 제시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았다.

조옮김에는 4가지의 음자리표를 익히면 좋다고 가온음자리표의 악보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악보 34] 조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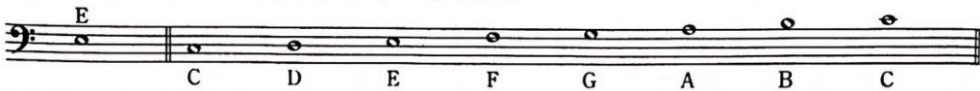
[악보 35] 조옮김 2

위의 [악보 34]는 첫 음에서 3도 내리려면 C음자리표가 첫째줄에 있어야 하며, [악보 35]는 2도 내리려면 C음자리표가 네째줄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 하였다.

위의 음자리표는 조옮김의 수단으로서 생각될 뿐이며, 실제로 음자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들 조옮김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이미 공부한 곡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악보 36] 조옮김 3



[악보 37] 조옮김 4

위의 설명과 같이 [악보 36]은 첫 음에서 2도 올리려면 C음자리표가 세째줄에 있다고 설명하였고, [악보 37]에서는 3도 올리려면 F음자리표가 네째줄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알테 제1권의 6가지 연습방법을 나열하여 연습하도록 조언하였다.

현악기중 바이올린의 현을 누른 손가락을 위아래로 진동시키는 주법과 같은 것을 비브라토라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곡상을 풍부하게 하면서 음색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한 표현법이다. 플루트의 올바른 비브라토는 배의 근육과 횡격막의 진동에 의한 것이므로, 입술과 목구멍을 떨지 않는다. 입술과 목구멍을 떠는 버릇은 한 번 불으면 좀처럼 고치기 힘들고, 어려우므로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비브라토를 익히려면, 처음에 다음의 연습을 하면 좋다고 [악보 38]을 제시하였다.



[악보 38] 비브라토

위의 [악보 38]에서는 텅깅 하지 않고, 목구멍을 연 채 불었다가 숨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분으로 끊는다고 연주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자신의 배와 근육, 횡격막 근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를 인식한다. 비브라토의 근원은 바로 그 부분인 것이다. 그것은 기침할 때나, 웃을 때, 재채기할 때와 같은 움직임이다.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익혔다면 앞의 비브라토 연습을 점차 빠르게 해서 다음 [악보 39]와 같이 한다.



[악보 39] 빠른 비브라토

이와 같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은 목구멍으로 끊는 버릇이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연습을 하면서 횡격막과 배 근육의 움직임을 잘 인지하고, 음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불면서 그 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입술 구멍이 올바르게, 입술이 유연하게 되어 있을 때는 호흡의 강약에 따라 입술 구멍의 넓이가 조절되어, 부드러운 음정의 오르내림이 합해져 아름다운 비브라토가 된다. 하지만, 입술이 딱딱하고, 입술 구멍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음의 크기에 의한 비브라토가 되어 듣기에 거슬린다. 위[악보 39]의 G음에 비브라토를 할 수 있게 되면, 어느 음에나 할 수 있도록 연습하며, 거의 무의식중에 비브라토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처음에는 배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횡격막을 움직이고 있는 상태지만,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편안해지도록 배 근육의 힘을 빼고 횡격막의 움직임만으로 비브라토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비브라토의 회수는 1박에 몇 개를 연주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곡상과 음

높이에 따라서도 빠르기가 바뀌므로 1초간에 4~7회 정도까지 연습하고, 진폭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하였다.

대부분 정열적인 곡일수록 비브라토는 깊고, 빠른 반면에, 서정적이고 조용한곡은 약간 느리고 얇은 것이 보통이다. 곡의 속도와 진행과 달리 비브라토의 회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클래식 음악의 경우는 거의 비브라토가 없는 세련된 연주도 많고, 연주자의 음악취향이 느껴지므로, 어느 곡에나 무턱대고 큰 비브라토를 함부로 행사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고, 나쁜 비브라토만큼 귀에 거슬리는 것도 없으므로, 혼자 학습하는 플루트 입문자들은 교사에게 들려 줄 필요가 있다. 만약 플루트 교사가 없다면, 바이올린 교사라도 좋다. 올바른 방법이고 입술이 유연하다면, 거의 바이올린의 비브라토와 같게 들릴 것 이다. 다만 1초간의 비브라토 회수는 바이올린보다 약간 적고, 진폭은 약간 얇다. 이 회수와 깊이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빠르면 깊고, 느리면 피치의 불안정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얇게 해야 한다고 알테에서는 비브라토에 대해 언급하였다.

14) 제2권의 제30~31과

제2권의 30과와 31과에서는 고전플루트 2중주의 연습곡들을 수록하여 알테 제2권의 각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헨델 작곡 소나타 9번과 텔레만 작곡인 2개의 플루트를 위한 소나타를 연습곡으로 제시하였다.

[악보 40]의 라르고 부분은 8분음표를 1박으로 잡고, 빨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연주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 꾸밈음과 트릴에 대하여 [악보 40]에 숫자를 삽입하여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악보 40] 소나타 9번

31과에서 제시된 연습곡의 일부이다. 알테 제2권의 연습곡 중 2개의 플루트로 연주 되는 연습곡의 첫 시작이다.

[악보 41]은 플루트의 1st와 2nd 중 어느 것이든 연주 할 수 있도록 연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nd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운지가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1st의 연습이 가능해지면 자신의 생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연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악보 41] 2개의 플루트를 위한 소나타

알테 제2권의 음악 용어 해설은 학습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영어의 순서대로 정리를 하여 나열해 놓았으며, 악곡에서 사용되는 박자와 그에 따른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빠르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놓았다. 또한 음악적 표현법에 대한 해설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해놓았다.

A

- A** (아) ~에, ~처럼, ~에서, ~로
A piacere (아 피아체레) 자유스럽게, 임의대로
Accelerando (아셀레란도) 점점 빠르게
Accentuare (아켄투아레) 악센트를 붙인다
Accompagnamento [이] (아콤포나멘토)
Accompagnamento [프] (아콤포나망) 반주
Adagio (아다지오) 느리게, 안단테와 라르고 사이의 느린 속도
Ad libitum (아드 리비툼) 자유로이, 뜻대로
Affetto (아페토) 상냥하게, 우아하게
Affettuoso (아페투오소) 애정을 깃들여, 따뜻한
Affrettando (아프레탄토) 급하게
Agitato (아지타토) 흥분한, 초조한
Al segno (알 세뇨) 유표가 있는 데서 되풀이하여
Alla breve (알라 브레베) 2분의 2박자, 2분음표를 1박자로 할 2박자
Alla coda (알라 코다)
Al. coda (알 코다) 코다로, 여기서부터 코다로 이동 연주한다.
Allargando (알라르간도) 크레센도하면서 속도를 떨어뜨린다.
Allegretto—**All^{to}** (알레그레토) 알레그로와 안단테의 중간 속도 (Metronom향 참조)
Allegretto quasi andante—**All^{to} quasi andante** (알레그레토 쿠아지 안단테) 안단티노만큼 느린 알레그레토 (Metronom향 참조)
Allegro—**All^o** (알레그로) 빠른 속도로 (Metronom향 참조)
Allegro molto (알레그로 몰토) 되도록 빠르게 (Metronom향 참조)
Allegro—**All^o** (알레그리시모) 아주 빠르게 (Metronom향 참조)
Amabile (아마빌레) 사랑스럽게, 애교가 있는
Amorosamente (아모로사멘테) 부드럽게 애정을 담고
Amoroso (아모로소) 애정을 담고 상냥하게
Andante—**And^{te}** (안단테) 보통 빠르기 (Metronom향 참조)
Andantino—**And^{no}** (안단티노) 안단테보다 빠른 듯한 또는 느린 듯한 (Metronom향 참조)
An echo (안 에히오) 매아리처럼
Animato—**Anim^o** (아니마토) 씩씩한, 발랄한
Animazione (아니마치오네) 원기있게, 쾌활하게
Appassionato (아파쇼나토) 열정적인, 격심한
Appoggiatura (아포지아투라) 앞무늬음, 꾸밈음
Ardito (아르티토) 대담하게, 격렬하게
Arpeggio (아르페지오) 펼칠 화음
Assai (아사이) 매우

B

Attacca—**Attacca subito** (아타카) 속도를 변화시킬 때 하나의 악장 끝에 다른 악장이 곧 계속될 때

- Begleitung** (베글라이퉁)—**Accompagnamento**
Ben (벤) 잘, 옹계, 충분히 (Ben marcato (벤 마르카토) 악센트를 충분히 붙여)
Ben accentuare (벤 아켄투아레) 아주 분명히 악센트를 붙여서
Ben agitato (벤 아지타토) 아주 격렬하게
Ben legato (벤 레가토) 아주 부드럽게
Ben marcato (벤 마르카토) 강하고 분명히 악센트를 붙여서
Ben marcato il canto (벤 마르카토 일 칸토) 선율을 뚜렷이 살려서
Ben moderato (벤 모데라토) 정확한 모데라토의 빠르기로
Bolero (볼레로) 플박자의 쾌활한 스페인 무곡으로서, 제 2권 24페이지의 2nd 플루트와 같은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Brillante (브릴란테) 빛나는, 훌륭한, 화려한

C

- Cadenza** [이] (카덴차) **Kadenz** [독] (카덴츠) **Cadence** [프] (카당스) 마침 전에 주자의 테크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미한, 연주가 까다로운 무반주 부분.
Calando(**Callendo**)—**Cal.** (칼란도) 점점 느리고 약하게
Calma (칼마)
Calmato (칼마토) 조용히, 침착하게
Canon (카논) 돌림노래, 돌림연주
Cantabile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Cantata (칸타타) 17세기에 이탈리아의 모디노에서 생겨난, 아리아·레치타티보·중창·합창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성악곡의 한 형식.
Canzonetta (칸초네타) <칸초네>의 축소형, 16세기 후반에 유행한 가벼운 기분의 작은 가곡.
Capriccio (카프리치오) 기상곡
Capriccioso (카프리치오소) 기분이 들떠서, 환상적으로
Coda (코다) 종결구
Colla parte (콜라 파르테)
Col. parte (콜 파르테) 성부를 따라서
Come prima (코메 프르마) 앞과 같이
Comodamente (코모다멘테)
Comodo (코모도) 편하게, 여유있게
Con (콘) (전치사) ~으로, ~와 함께

<그림 3> 음악 용어 해설

IV. 결론 및 제언

플루트 교육은 음악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차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플루트 기초 교육에서 적합한 교재의 선택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방향과 효과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플루트 교육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플루트 교육은 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플루트 교육에 있어서 교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교재와 플루트 교재의 고찰로 플루트 교육의 교재로서 중요한 선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플루트 교본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어온 기존의 플루트 알테 교본 제2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소개된 교재로서 알테 플루트교본 제2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상기 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교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알테 제2권의 교재의 특징, 단원내용의 구성, 꾸밈음과, 트릴의 종류, 더블 텅킹, 음색, 비브라토, 곡의 스타일과 표현, 2중주의 연습 등의 레파토리 나누어진 각 과의 단원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알테 제2권 교재의 학습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플루트 학습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플루트 연주에서 꾸밈음은 앞서 그림을 통하여 시대에 따른 꾸밈음에 대해 시각적인 효과로 흥미를 주었고, 꾸밈음 종류에 따라 곡들이 나누어져 연습할 수 있게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알테 플루트 교본 제2권은 플루트 기초 지식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있고, 구성 상 쉬운 조성에서 어려운 조성으로 각 단원마다 이루어져 있어 학습자가 단계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그에 따른 테크닉을 익히며 2중주까지 함께 연습 할 수 있고, 음색과 음형의 중요함을 다룸으로써 음의 영역까지 접근하였다. 알테 플루트 교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실기연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플루트에 대한 기초 이론과 음을 내기위한 준비단계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 그림을 수록함으로써 플루트 입문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본 속의 연습곡들은 대부분 테크닉에 맞는 연습곡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연주 하면서 다시 한 번 각 과에서 배웠던 테크닉을 복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 바람직했다. 그리고 듀오 연주를 통해 곡의 특징과 다양한 반주패턴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곡의 재미를 느끼며 연주 할 수 있도록 2중주곡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연주

를 하면서 화음을 느낄 수 있고, 좋은 음악에 있어 정확한 음정의 중요함을 일깨워주었다.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있는 음악용어 해설은 학습자들이 교사 없이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수록해 놓았다. 또한 플루트 교육에 있어서 본 교본을 채택하여 이용하면 포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루트를 연주하는데 중요한 음색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설명과 함께 연습곡만 있을 뿐 음색을 내기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설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명시 되어있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게 조금 더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연습곡들이 수록되어 있었다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알테 제2권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kpop교재나 CD반주가 같이 수록 되어있는 소품집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추가하여 지도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교재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재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다른 교재와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플루트 교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습자 개개인의 성취하고자 하는 개성과 목표를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질적으로 향상된 플루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재의 선택과 병용에서부터 가르치는 교사의 지속적인 연구 자세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 학습자에게 올바른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플루트 교육의 양적인 증가에 따라 이와 함께 질적인 향상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플루트 지도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플루트 교재에 대한 끊이지 않는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플루트 알테 교본이 오랫동안 플루트 교본으로써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분석 연구 결과, 보완에 있어서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단점들을 다른 교본과 함께 병행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플루트 교본에 대한 관심 있는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면 플루트 교육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미숙 외 11인(2015). 음악과 교재 연구: 음악교육 교재·교구 개발 및 활동. 서울: 학지사.
- 김신영(2017). 우쿨렐레 초급교재의 비교분석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을곤(1995). 새 악기해설. 서울: 아름출판사
- 김진선(2014). 초보자를 위한 알테 플루트 교본 분석 및 지도방안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호정(2010). 성인 피아노 기초 교육을 위한 교수법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정(2005). 성인 초보자를 위한 플루트 교재연구 및 지도방안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유리(2006). 플루트 실기지도를 위한 교재 비교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인혜(2018). 한국 피아노 교본 클라비어 분석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알테, J. H. (1997). 알테 플루트 교본2. 서울: 삼호뮤직.
- 오지은(2010). 플루트그룹지도를 위한 기초 교재분석 및 지도방안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금혜(2001). 피아노 초급교재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철행(2015). 초보자를 위한 트럼펫 교본 개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 영(1995). 피아노 기초교재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양선(2012). 초보자를 위한 플루트 지도방안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한전민(1999). 플루트 그룹지도를 위한 기초교재 분석 및 지도 방안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허유경(2010). 초보자를 위한 플루트 지도법의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홍연경(2018). 아르방 트럼펫 교본 분석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